

“직업성질환의 확인 과 효과적관리를 위한 방안”

신 동 철

금년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사회보장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에서는 산업보건서비스체계가 아직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한 아시아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산업보건관리를 주제로한 토의가 있었다. 직업성질환을 일반질환과 구분하여 확인진단할 수 있고 확인된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분야에서 필요한 여러활동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여기에서 소개되었다. 이러한 활동들 중에서 연구사업, 예방, 질병의 확인, 치료와 재활활동이 포함되며 이중 예방활동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여러나라들이 최근 급격한 현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중에서 근로자의 건강문제 즉, 유해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과 법적인 조치까지를 가능하게 하려면 사회적예방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뒷바침이 되는 연구사업으로는 우선 각나라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연구와 더불어 실제 근로자

에서 얼마나 직업성질환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역학연구(疫學研究)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역학연구의 결과로 그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직업성질환의 전체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후의 평가가 가능해진다.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하여는 네가지 부분의 노력이 필요한데 첫번째, 근로자들 스스로가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적 뒷바침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고용주나 산업장의 관리자가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책임이라고 받아들여 능동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산업장내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의사와 산업위생사간의 긴밀한 협조로 산업장내 보건문제를 확인하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다각도로 취해야 한다는 것이며 넷째, 예방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높이기 위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업성질환은 그 실상보다 적게 확인되었고 낮게 보고되어 왔다. 각 산업체의 특성에 맞는 산업장내에서의 일차보건의료 사업을 통하여 직업성질환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산업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통하여 이들의 치료와 재활, 예방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각 나라에서는 현존하는 산업보건의료 체계내에서 이러한 총괄적인 서비스가 과연 가능한지를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제도를 개선 보완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이루고 운영하기 위하여는 많은 전문인력, 재원, 시설등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와 기업주, 사회단체에서는 이의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치료와 재활은 근로자가 정신적, 사회적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직업재활 활동이 필요하며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별히 고려된 교육, 기술훈련등이 필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국제사회보장협회와 협력하여 공동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각나라의 산업보건 관련단체와의 상호협조방안을 토의하였으며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산업보건서비스가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모든 나라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회의를 마쳤다.